

# 주담대 금리 정점 찍었나... 석달 만에 상단 6%대 전망

국내외 통화긴축 완화 기대감 시장금리 하락, 가산금리 축소 은행 대출금리 1%p 안팎 내려 하나銀 예금 금리 3%대로 하향 신한銀 예·적금 금리 소폭 인상

통화 긴축 완화 기대감으로 시장금리가 내려가고 은행들도 가산금리를 줄이면서 최근 2주일 새 은행권 대출금리가 1%p

인트 가까이 급락했다. 한국은행의 7년 속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상 자제를 요청(국제신문 지난 16일 자 15면 보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24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설 연휴 직전인 지난 20일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4.600~7.148%다. 2주 전인 지난 6일 연 5.080~8.110%와 비교해

상단이 0.962%포인트, 하단이 0.480%포인트 하락했다.

예금·대출금리차 확대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축소한 데다, 변동금리 기준인 코픽스(COP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예금금리 하락 등을 반영해 지난 17일부터 0.050%포인트 내렸기 때문이다. 국내의 기준금리 인상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로 시장금리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초 8%를 넘었던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상단이 일제히 6%대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6%대 최고 금리는 지난해 10월 말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하나은행은 25일부터 대면 방식의 주택담보·전세대출 일부 상품 금리를 최대 0.30%포인트 인하한다. KB국민은행도 26일부터 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1.30%포인트 내린다.

지난 20일 현재 4대 은행 가운데 하나은행(7.148%)과 KB국민은행

(7.130%)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만 7%를 넘는데, 이번 주 중 금리가 조정되면 7%대 대출금리는 사라진다. 이달 초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8%를 돌파하면서 약 14년 만에 8%대 대출금리 시대가 열렸지만, 불과 보름여 만에 6%대로 빠르게 내려앉은 셈이다.

3%대까지 내려온 예금금리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일 기준 하나은행의 '하나의정기예금' 금리가 4%대

행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 금리가 3%대(3.67~3.95%)로 하락했다.

하지만 일부 은행은 오히려 뒤늦게 기준금리·시장금리 인상분 등을 반영해 예·적금 금리를 올리기도 해 정확한 추세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신한은행은 지난 19일 '신한 알.솔.적금'의 금리를 0.20%포인트(12개월 기준), '신한 가평점스빙 적금'을 0.20%포인트(1년) 인상하는 등 모두 11가지 적금과 2가지 예금의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정인덕 기자



LG전자, 디자인 혁신 '그램' 신형 공개 24일 모델이 'LG 그램 스타일(LG gram Style)'을 이용하고 있다. LG전자는 그램 출시 10년 차를 맞아 성능과 디자인을 개선한 2023년형 신제품 라인업을 출시했다. LG전자 제공

## 은행 30일부터 '9~16시 영업' 추진

■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연동 사측 '합의 관계없이 환원 가능' 금융노조 '9시30분 개점' 요구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시중은행 영업시간도 1시간 늘어나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은행권은 노조의 합의와 관계없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법률 검토를 마쳤다.

금융노사는 앞서 지난 18일 영업시간 정상화를 주제로 회담했다. 회담에서 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박용배 금융노조위원장에 "영업시간 정상화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특히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와 함께 독자적으로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영업시간은 2021년 7월 12일부터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 줄었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한 데 따른 조치였다. 같은 해 10월 금융노사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한다'고 의결하면서 영업시간 단축은 전국단위로 확대됐다.

하지만 사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반드시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해석을 얻었다. 중앙노사위 합의 내용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단축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고, 2022년 교섭에서는 이 문제를 테스

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한다고만 합의한 만큼 영업시간을 복원하는 데 노사 합의가 필수조건이 아니라는 논리다. 반면 금융노조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내정 고객이 거의 없는 오전 시간 영업 개시는 현행대로 9시30분에 하되, 마감 시간은 오후 3시30분에서 4시로 늦추는 방안을 사측에 제안했다"며 "하지만 사용자들은 금융감독 수장들의 말 몇 마디에 열어붙어 '무조건적 과거 회귀'만 고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매우 높은 만큼 노조가 선불리 집단행동에 나서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인덕 기자

## 대성문, 리츠 인가 획득... "임대주택에 공공성 반영"

우리대성문리츠 10년간 운영 5년내 자산 1조대로 확대 계획

부산 증권 건설사인 우리대성문이 국토교통부 리츠(REITs) 인가를 받아 사업 확대에 나선다.

24일 대성문은 '우리대성문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우리대성문리츠)'가 최근 국토부의 리츠 영업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대성문리츠는 ▷부동산 취득·관리·개발·처분 등 개발사업 ▷임대차, 증권 매매,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취득·관

리·처분 ▷신탁 재산의 수익권 취득·관리·처분 등 사업 활동을 폭넓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우리대성문리츠는 자본금 63억 원에 총자산비 704억 원 규모로, 대성문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건설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다. 우리대성문리츠는 앞으로 완성될 임대주택을 포트폴리오에 담아 10년간 운영한다. 또 대성문이 개발 중인 부산 영도구와 서구 남부민동 트립아파트 등을 리츠 사업에 포함해 총자산 2000억 원 규모로 운영하고, 5년 내 1조 원대로 자산을 확대해 계획이다.

대성문의 리츠 운영 파트너는 우리금

웅그룹의 우리자산신탁이다. 우리자산신탁은 지금까지 사무실·대도 사업·물류 센터를 기초 자산으로 한 리츠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대성문과 처음으로 임대주택 리츠 분야에 진출하게 됐다.

대성문 관계자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서울 청년 매입임대 50가구 모집에 2만903명이 신청해 41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안전성이 담보된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등 주택 시장 수요가 변화하고 있다"며 "공공성이 반영된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l@kookje.co.kr

## 기업인 30% '엑스포 유치 소식 희망'

대한상의, 새해 염원뉴스 조사 미래 준비 부문서 3위에 올라 경제대응 부문 '금리인하' 1위

우리나라 기업인 10명 중 3명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새해 가장 듣고 싶은 뉴스로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계묘년 설을 맞아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기업인이 염원하는 희망 뉴스(가상 뉴스)' 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이 조사는 대한상의가 자체 설문 플랫폼을 통해 전국 73개 상공회의소와 기업인

3267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미래 준비' 부문에서 29.4%가 답해 3위를 기록했다. 1위는 탄소 중립 신기술 개발(46.6%), 2위는 저출산 정책 효과(35.5%)였다.

대한상의는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해 "부산이 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하면 경제 효과는 6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대한민국은 월드컵을 람픽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7번째 국가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제대응 부문 희망 뉴스 1위는 '금리전격인하'(51.2%)가 차지했다. 2위는 '코로나19 종식 선언'(42.9%), 3위는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안정'(39.1%)이었다.

정재욱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국제안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무료전화 TEL: 500-5005 FAX: 506-1221, 4276  
전화 FAX접수 → 온라인 송금  
입금계좌 부산은행 125-01-000001-5  
우리은행 202-04-103217

**총무배달원**  
배달원급 월 1만여 원  
010-2201-8408 연이적금  
총무직업배달원 (623) 6642  
총무직업배달원 (623) 6642

**총무배달원**  
총무직업배달원 (623) 6642  
총무직업배달원 (623) 6642

**신원**  
신원정확도 46%  
정확도 46%  
신원정확도 46%  
정확도 46%

**총무배달원**  
총무직업배달원 (623) 6642  
총무직업배달원 (623) 6642

**총무배달원**  
총무직업배달원 (623) 6642  
총무직업배달원 (623) 6642

**직원모집**  
국제신문 양산센터와 함께 할 근면 성실한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아래-  
구분 인원 자격  
총무 0명 · 경원자 우대  
· 앞산지역 거주자 우대  
· 오토바이운전 가능자  
· 조식배달원 모집  
· 초보가능(대학생, 주부, 직장인)  
☎ 연락처 055-385-5445 / 010-2085-0626  
K 국제신문

**직원모집**  
국제신문 수정센터와 함께 할 활동적이며, 근면 성실한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아래-  
구분 인원 자격  
관리소장 0명 · 경원자 우대  
상주 판촉요원 0명 · 신문판촉 경원자 우대  
직업 배달원 0명 · 경원자 우대  
· 원동기 면허 소지자 우대  
\*공통사항 : 관할거주자 우대  
☎ 연락처 : 010-3694-4152  
K 국제신문

**직원모집**  
국제신문 초량센터와 함께 할 활동적이며, 근면 성실한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아래-  
구분 인원 자격  
관리소장 0명 · 경원자 우대  
상주 판촉요원 0명 · 신문판촉 경원자 우대  
직업 배달원 0명 · 경원자 우대  
· 원동기 면허 소지자 우대  
\*공통사항 : 관할거주자 우대  
☎ 연락처 : 010-3694-4152  
K 국제신문

**직원모집**  
국제신문 하단 센터와 함께 할 성실, 근면한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아래-  
구분 인원 자격  
총무 0명 · 총무 경원자 우대  
· 초보가능  
배달원 0명 · 경원자 우대  
· 초보가능(대학생, 주부, 직장인)  
☎ 연락처 : 051-208-1213  
010-2927-2202  
K 국제신문

**사업의 길이 보입니다**

■ 광고 접수 안내  
원고접수, 마감 → 담당통화 → 입금마감 → 제작, 원고 확인 → 익일 게재  
(오전10시~오후4시) (오후4시30분)

■ 국제안내 : 당일 접수 → 익일 게재 안내  
● 분실, 한정승인, 각종 공고, 모집 등 안내 접수는 오전 10시부터 마감 시간은 오후 4시입니다.  
● 담당자와 통화하신 후, 광고 종류와 크기, 요금 등을 먼저 상담하시고,  
● 게재할 광고 내용과 함께 의뢰자, 상호, 연락처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 지정한 구좌로 오후 4시 30분까지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을 확인한 뒤, 원고 제작에 들어가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통화하여 입금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 연락처 및 입금구좌 등 안내  
○ 원고 접수 및 문의 : 051-500-5005  
○ 접수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4시(월~금요일)  
○ 팩스 / 이메일 : 051-506-4276, 1221 / design@kookje.co.kr  
○ 입금 은행 : 부산은행 125-01-000001-5  
우리은행 202-04-103217 / 농협 942-17-002438  
○ 예금주 : (주)국제신문